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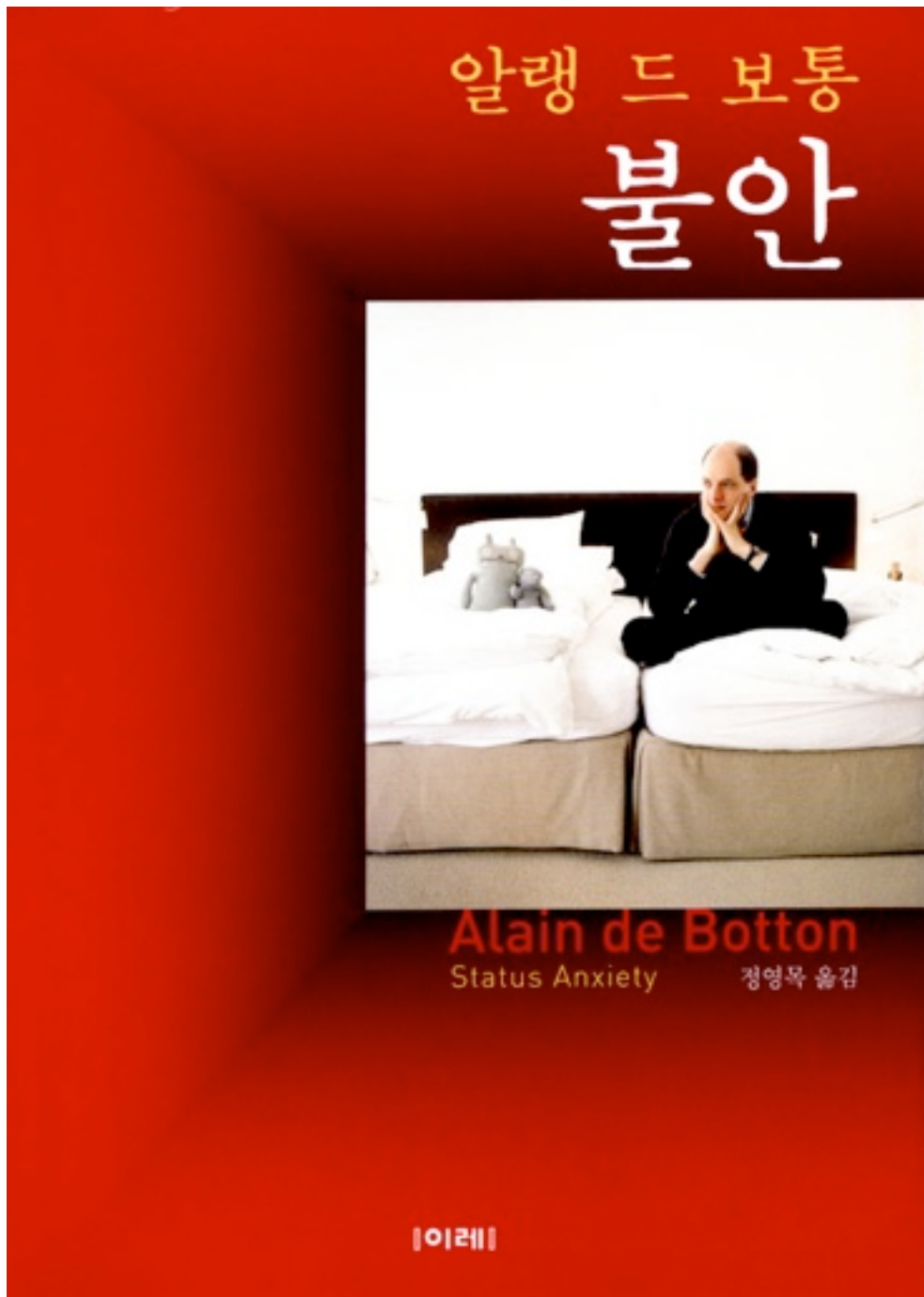
# 불안

알랭 드 보통 / 정영목

이레

2011년 4월 1일 ~ 4월 5일 (★★★★☆)

---



---

## 01. 이 책을 읽고 느낀 것 (정리하자면...)

---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유명한 작가의 책을 접했지만 아직 시기가 적당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굶어읽기식의 독서법으로 충분한 몰입이 덜 되었는지 세계적인 명성에 준하는 책의 깊음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 시대를 아우르며 그것들을 통찰로 엮는 그의 훌륭한 재능은 느껴졌으나, 개인적인 끌림이 덜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작가는 불안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원인분석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원하는 가치관과 미덕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게 만든다. 니체가 이야기 했던 국가에 대한 부정이 생각났다. (단지 입문서 한권을 읽고 니체를 논한다는 것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정말로 어이없는 시도일 수 있겠지만 이 글을 먼 훗날 내가 읽었을 때, 반성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의미있다 싶어 이 글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고 싶다)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들은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인간 공동체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 과정에서 특수한 개성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두 다 그 싹이 잘려졌고, 그 과정을 목격하는 대중들은 세상에 순응/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안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가가 옮긴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상에서의 작고 흔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그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다는 재능에 대해서는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며 이런 실력이 있어야 전세계에 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편으로는 들었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우리.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

이 시대에서 나만 고상한척 나 혼자만이 무언가의 도를 터득한 양 살 수는 없다. 사람은 서로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완성이 실현되는 것일 것이다. 불안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 볼 수는 있었으나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의 잣대와 프레임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관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생각과 사유의 차원을 달리 해야한다.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앞서 살았던 현자들의 지혜와 철학은 이런 불안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힌트를 적어 놓았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숨겨져 있고 실천을 하기에 무리가 있을지라도...

---

## 02. 내 마음의 들었던 글귀

---

### 1. 사랑의 중요성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21)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스스로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가 못났다고 느낀지 암시한다 해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21)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22)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는지 결정한다. 이 자리는 사랑을 얻는 열쇠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23)

### 2. 속물근성

속물은 독립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갈망한다. 따라서 언론의 분위기가 그들의 사고를 결정해버리는데, 그 수준은 위험할 정도이다. (33)

소위 팔랑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남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자신의 결정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드백과는 어떻게 구분되어야 할까. 내가 만드는 작업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내가 선택하는 길에 대한 멘토와 사우들의 의견. 이것들의 구분은 의견을 주는 사람들의 진정성에 있는 것일까?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남들을 경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남에게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기를 쓴다 (25)

“남을 비난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라는 싯다르타의 말은 아직까지 내 가슴에 살아 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 실천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의식을 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할 때 느껴지는 자기 실망과 비참함은 때로는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

과소비에 대한 조롱을 하기 전에, 이런 물건을 만들고 소비한 큰 맥락을 살피는 것이 공정한 태도라 할 수 있다. (38)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래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다. (38)

### 3. 기대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데이비드 흄, 인성론-59)

귀족계급의 지원을 받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사회는 그 참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맛보기 어려운 몇 가지 행복을 누렸다. 사회는 불평등했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기대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거해버렸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물질적 평등을 성취할 수단이 없는데도 이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느꼈다. (68)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걸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만 수모를 느낀다. 무엇을 승리로 해석하느냐, 무엇을 실패로 간주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다 (70)

삶이 불가피하게 고난일 수 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은 수백년 동안 인류의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울화로 치달는 마음을 막아주는 보류였다. (73)

부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부는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80)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학습을 받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비참할 수 있다. (82)

우리는 조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 대가는 우리가 현재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끊임없는 불안이다. (82)

### 4. 능력주의

자신의 지능과 능력만을 기초로 위엄있고 보수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부가 품성의 온당한 지표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부자는 단지 더 부유할 뿐 아니라, 더 낫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1) 그러나 이야기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112)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실패는 과거에 삶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던 농민은 다행스럽게도 겪을 필요가 없었던 수치감과 연결되었다. (113)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 (119)

### 5. 불확실성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하녀다 (124)

참으로 멋진 말이다. 그의 필력이 멋있다.

삶의 조건의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지위 문제가 고용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127)

3에이커의 자유 ; 3에이커만 있으면 4인이 먹고 살만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고용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128)

1724년부터 1815년 사이 150만 에이커 가량의 땅이 폐쇄되었으며 이 인클로저 운동은 근대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탄생을 알린다. 근대의 산업 프롤레타리아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먹고 살 수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받고 자기 자신을 고용주에게 팔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 된다. (129)

시장은 본래 생산자들이 자신의 경쟁력이나 가격 우위를 장기간 지키기 어려운 곳이다. (132)

우리가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성공을 해야만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136)

경제학은 노동자를 오직 일하는 동물로만 본다.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요구만 남은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피고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하기 위해 치는 기름과 같다. 노동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돈이다. (140)

공감하는 바다. 노동 그 자체는 자기완성을 위한 실현 그 자체임을 이전 책에서 읽었다. 놀이를 통해 스스로 그 즐거움을 맛보며 행하고, 그 행함이 노동의 형태로 발현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을 이전 수업에서 배웠다. 이제는 실천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 실천의 무게는 대단히 무겁고 힘들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어떤 동지애가 이룩된다 해도, 노동자가 어떤 선의를 보여주고 아무리 오랜 세월 일에 헌신한다 해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그 지위가 자신의 성과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제적 성공에 의존한다는 것, 따라서 자신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감정적인 수준에서 변함없이 갈망하는 바와는 달리 결코 그 자체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43)

이 문제는 이전 직장에서 내가 느꼈던 바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가 6년간 몸담았던 그 조직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 이상적이었으며 고용자들의 편의를 봐주던 그런 회사였다.

더구나 NT/NF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SP 기질이 있는 탓에 전문성을 선호하면서도 그 분야에서는 평판이 높은(인지도가 높은) 그 회사에서의 재직에 대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다. 하지만 불안을 언제부터인가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불안의 정체들이 위 설명에서 이해되었다. 그 이후 나는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현재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해법 01] 철학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호적인 시선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요구는 과거와 다름없이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 (152)

철학자들은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모욕은 근거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156)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 ; 칭찬을 받으면 더 나아지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더 나빠진다면? 칭찬받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욕당했다고 괴로워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파악하라고 권고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가?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158)

자기 구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남들의 시선과 신경쓰지 않고, 10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일 수 있다. 불안 덕분에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능력을 계발하기도 한다. (159)

철학자들은 이성을 이용하여 감정을 적절한 목표로 이끌라고 충고해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워할 만한 것인지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지혜로우면서도 침착한 중도를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성의 도움을 받아 중도에 이르는 것을 행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160)

어디에서나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가장 어처구니없는 의식들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야>라는 말로 용인되고 있다. (163)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긴 하지만,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들다는 것이다. (166)

학교 선생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다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 (167)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모든 질책은 그것이 과녁에 적중하는 만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168)

## [해법 02] 예술

그들의 작품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항의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고통을 이해하거나 감수성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돕고, 감정입입 능력을 길러주고, 슬픔이나 웃음을 통하여 도덕적인 균형을 다시 잡아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 예술은 삶의 비평이다. (174)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공감은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과 같은 재앙에 말려들 수 있다는 느낌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다. (206)

우리의 이성과 선견지명은 소포클레스가 말하는 운명, 그 미지의 모호한 힘들과 맞부딪혔을 때 허약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 등이다. (210)

우리가 비극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작품을 통해 실패의 유래를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211)

유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지위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231)

## [해법 03] 정치

역사의 몇 층을 파고들어가보면 여러 시대 여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명예로운 사람으로 간주했는지 그 다채로운 양상이 드러난다. (239)

새로운 시각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가 결코 옳은 것이라 할 수 없겠다. 인류는 다양하게 그 가치의 진화를 겪어오고 있다. 신이 보기에 이러한 인간들의 가치와 사회규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고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져야 하는가? (절대 지식에 대한 사유까지 직접 하지 말라는 MBTI 상담코치의 말이 떠오른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괜히 빨간 약을 먹었다. πππ)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268)

아무리 우아하고 세련된 자동차라도 그 만족감은 인간관계가 주는 만족감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269)

선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선망하느라 우리 삶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269)

러스킨 <이 최후의 사람에게> ; 부에 대한 일반적인 금전적 관점을 버리고 삶에 기초한 관점을 채택하라고 호소했다.

삶, 즉 사랑의 힘, 기쁨의 힘, 감탄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삶 외에 다른 부는 없다. 고귀하고 행복한 인간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다.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271)

## [해법 04] 기독교

죽음을 생각하면 사교생활에 진정성이 찾아온다. (298)

노퍽의 월싱엄 마을에서 발견한 유골 ;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중요했을 이 인물들이 지금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307)

폐허는 우리의 노력을, 완전과 완성이라는 이미지를 버리라고 한다. 폐허는 우리가 시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파괴의 힘의 장난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316)

지위에 대한 우리의 하찮은 걱정을 천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우리 자신의 미미함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된다. (320)

모든 인간이 귀중하다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런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태도를 조성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어렵게 보지 않는다. (333)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존엄과 자원의 기본적 평등 덕분에 승자 옆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제어되고 경감된다. 성공하여 피어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여 시들것이냐 하는 이분법의 그 가혹한 칼날도 약간은 무디어 지는 것이다. (334)

기독교에 봉사하던 천재적 화가와 장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의 가치에 영속적인 형태를 부여했으며, 돌, 유리, 소리, 말, 이미지를 어루만져 그런 가치들의 현실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344)

이 글에서는 재능공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재능공헌>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재능공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평가결과에서 벗어나 헌신함으로써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자발적 의지와 선한 의도에서 작업한 결과가 의뢰자(수령자)가 보기에 합당치 않을 경우에...

작업결과를 세상에 내놓아 무언가를 도모하려 할 때, 그 결과가 부족하거나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재능공헌>이라는 순수한 동기의 미덕 때문에 그 부족함과 아쉬움에 대한 속마음은 내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재능공헌>에 대한 그 실체를 많이 생각하는 요즘이다.

## [해법 05] 보헤미아

주류 문화와 갈등하면서도 자신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가치 체계, 우리가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보헤미안들의 통찰이다. (364)

글을 읽으면서 나 역시 보헤미안들의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헤미안들은 세상이 어리석음과 편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여 외적인 실패를 별로 해석하지 않았다. (366)

지위에 대한 불안의 성숙한 해결책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서 시작한다. (384)

지위에 대한 불안은 성공적인 삶과 성공적이지 못한 삶 사이의 공적인 차이를 인정할 경우 치를 수 밖에 없는 대가다. (384)

---

## 03. (강의에)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혹은 재미있는 스토리

---

속물에 관한 책 ; 25년간 속물이 영국에 철도처럼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어디를 가나 발견할 수 있다. (28)

1559년 모스크바 박람회 ; <타지마할 부엌>이라는 표현.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그림들

그의 사진은 육안의 한계를 넘어 수평으로 때로는 수직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초대형 사진으로 담아서 상업사진의 디지털의 정교한 테크닉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음. 우리는 컴퓨터에 앉아서 자신이 이 세상의 중요한 인물인 양 착각을 하며 자신만 갖는 상상의 왕궁을 건설하고 있지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을 한 폭의 사진에 담는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요. 이 세상 공간은 실로 고독한 공간입니다.

[글 출처 ; <http://blog.naver.com/khkookk>]





[99cent]



[Factory]





[Chicago Board of Trade II]

토머스 페인 <인간의 권리> 문학과 과학에 세습제를 적용하면 이 두 분야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생각하며 혼자 웃음을 짓곤 한다. (103)

고대 그리스인은 우리와 변덕스러운 재능 사이의 괴로운 관계를 뮤즈라는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했으며, 이 재능은 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25)

ATM 한대는 무려 37명의 은행출납계원 일을 한다. (게다가 병드는 일도 없다. 133)

보헤미안 시인 브라이언 하워드는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면서 초대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찍어 보냈다. (354)

참신한 아이디어다. <디퍼런트>에서 읽었던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초대장 아이디어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즐거움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아이디어다. 시도해 봐야겠다.

---

## 05. 이 책을 계기로 읽어 볼 도서

---

여행의 기술